

[실무 수습기]

“인생은 Attitude에 달려있다”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졸업 (화학)
- 고려대 법무대학원 수료 (지적재산권법)
- 삼성SDI 전략기획팀 과장
- (現)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



조 규 응

I. 들어가며

2011. 2. 1. 화요일.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하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2년 전 이맘때에 나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었다. 패기만만하고 자신감 가득했던, 만24세에 학부/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첫 입사했던 그 날도 이맘때였고, 10년간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어느덧 기획실의 고참 과장이 되는 동안,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회사의 여러 임원 동료 직원들의 격려와 용기와 응원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던 날도 이맘때였다.

II. 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

이번 겨울방학 법원실무수습의 특징은 심화과정이라는 점에 있었다. 선발 과정에서부터 여름방학에 법원실무수습을 마친 2학년 학생들 5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추천과 법원선발로 약 100여명의 로스쿨 학생들 에게만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게다가, 여름방학 실무수습이 2주일로 짧은 기간임에 비해, 이번 겨울방학 실무수습 심화과정은 원칙적으로 5주에서 8주 동안 각 법원의 판사실에서 판사님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법관의 일상을 옆에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말 그대로 심화과정으로 설계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었다. 더구나 이번 실무수습 심화과정은 로스쿨 1기 졸업생 배출과 함께 처음 시행될 예정인 재판연구관(Law Clerk)제도의 시험 운영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에게 특히 관심이 높았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재판연구관이 되고 싶어 하거나, 장차 법원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은 아마도 대부분 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지원하였었고, 이번 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선발되어 임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마음가짐 또한 진지하고 열정에 가득 찬 모습들이었다.

III. 서울행정법원에 배치된 나

2010년 여름에 비록 2주간이긴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와 형사재판부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방학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민·형사 이외의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게 되니 기분 좋았고, 또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에서도 훌륭한 판사님들이 모이는 곳이라던데, 내가 그런 곳에 배치된다는 사실도 왠지 기분 좋았다.

처음엔 막연히 어렵고 생소했던 행정법 분야였지만, 이곳에서 6주 동안 지내면서 각종 기록을 보고 사건을 검토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재판장님의 배려로 법원의 소장이 처음 접수되는 종합접수실과 법원의 각종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과에서도 하루씩 근무하면서 막연하게나마 행정법과 행정소송의 실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나는 서울행정법원 제11합의부(서태환 부장판사)에 배치되었는데, 산업재해와 주민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였다. 서태환 부장판사님께서는 내가 6주간 실무수습을 하는 동안 재판부 전담 사건인 산업재해나 주민소송 이외에도, 행정 분야에 관한 다양한 사건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교과서나 언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의 급여청구 문제, 상속/증여에서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 기업의 수출/수입과 관련된 관세 문제, 환경권을 주장하면서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문제,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적법 타당여부와 관련한 문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비록 6주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이지만 두루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면서도 차근차근 배려해서 지도해주셨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막 행정법 분야에 채 받을 딴지도 못하는 풋내기 로스쿨 학생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주시는 것은 물론, 보고서에 개진한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전지하게 검토하시면서, 재판부 합의 과정에도 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쓴 보고서가 재판부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람과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배석 판사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판사님 방 한쪽에 자리 잡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내가 보고서를 쓰기위해 필요한 참고 논문이나 하급심 판결문 출력을 부탁하거나, 관련 쟁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문의 드릴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셨다. 6주 동안 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판사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배우기도 했지만, 또 판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는데, 판사란 원래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이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드느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행정소송의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법원이나 로펌 등에서 실무수습을 여러 번 경험해 보긴 했지만, 현장검증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교과서에서 “현장검증은 마치 공판이 법정 외에서 열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장소만 법정인 아닐 뿐 당사자들은 공개된 사건 현장에서 직

접 사실을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 저런 사실들을 소명하는 과정이 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과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소송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분쟁 해결의 수단이고 법원의 재판을 국가 사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당사자가 소송 수행과정을 통해 절차적인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는 과정을 통해, 승패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법부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직접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게 절차를 충실히 보장하고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을 충실히 들어주고 검토하였다는 사실은, 비록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사자로서는 소송에서 할 만큼 했다(최선을 다했고, 재판부도 자신들의 말을 충실히 듣고 심리에 반영했다)는 인상을 갖게 하고, 재판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현장검증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항소율로 수치적으로 확인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사자간의 소송수행의 만족도 면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이 분명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장검증은 국민의 사법절차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소소하지만 6주간 법원 실무수습을 하면서 누렸던 또 하나의 즐거움은 점심시간에 판사님들과 함께 행정법원 근처의 이곳저곳의 식당을 다니며 식사를 함께 하고, 법원 구내를 산책했던 일과, 판사님과 함께 야근하면서 판사실에서 함께 했던 저녁식사나 퇴근길의 술 한 잔도 평생 두고 기억나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어느덧 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을 마치는 날 나는 작년 겨울 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지원하면서 지원서에 내가 써 놓았던 글을 꺼내 읽어보았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임했고, 5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거기엔 이런 글이 있었다.

“심화과정에서의 경험이 향후 법조인으로써 활동해 나가는데 있어 든든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V. 인생은 attitude에 달려 있다

삼성의 반도체 신화의 주역 중 한명으로 유명한 前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씨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로도 유명한데, 그의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대한상의 초청 조찬 간담회를 시작하며 참석자들에게 던진 ‘조크선’ 질문이다. 진 장관은 “제가 재미있는 얘기하나 하겠습니다.” 고 말하며, 파워 포인트를 열었다.

방법은 이렇다.

일단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준다. A에 1을 붙여주고 B에 2, C에 3, D에 4. 이런 식으로 Z(26)까지 붙이면 된다. 그런 다음 어떤 단어 알파벳에 붙여진 숫자를 모두 더해 100을 되는 단어를 찾는 것이다.

방법을 소개한 뒤 진장관의 문답은 계속됐다.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hard work, 98점입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많으면? knowledge는 96점입니다.

사랑을 하면? love 54점입니다.

운으로 될까요? luck 47점입니다.

돈이 많으면? money는 72점입니다.

리더십은요? leadership 89점입니다. 그럼 될까요?”

“답은 바로 attitude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100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선택을 통해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도 한다. 진 대제 전 장관이 삼성에서 이룬 성과나, 내가 행정법원에서 누렸던 좋은 경험들이 어떤 기회와 경로를 통한 것이었든, 그 경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다치 찾아오지 않을 로스쿨 재학기간동안의 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임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 했는가 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V. 다시 새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환/마마도 아니고, 바로 익숙함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도,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던 아내라도,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그 소중한고 애썼던 간절한 감정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항상 그 익숙함에 빠져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에게 로스쿨 생활 3년과 법원 실무수습의 기간은 익숙함이라는 틀 속에서 나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과 초심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일깨우게 해준 인생의 큰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회를 갖게 해준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내 주변의 모든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즐거움이자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이제 이곳 서울행정법원을 나서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선택하고 내게 주어진 이 길을 열심히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하리라 다짐한다.

내가 쓴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지원서엔 이런 글도 있었다.

“저는 궁극적으로 법률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달성 여부는 법원의 사법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일할 기회를 갖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원에서 일할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더라도, 제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전문가로 활약 하면서, 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서울의 큰 법원이건, 지방의 시·군법원이건 우리사회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과 제도의 운영을 통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길이 제가 지금까지 가족, 이웃, 사회로부터 받은 수많은 배려와 혜택에 대하여 제가 보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